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본청 시청각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남호 · 황호진 단일화 전북교육 기망한 야합”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 철학과 상반된 결합” 직격탄
“전북교육 미래 위한 가치 지켜져야... 정책 중심 경쟁 이끌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예비후보가 이남호·황호진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천 후보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정책과 교육 철학 신념은 뒤로한 채 선거 승리를 위한 사적 이익이 우선된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번 단일화가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에서 상반된 두 후보의 결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황호진 후보가 불과 며칠 전 방송 토론회에서 이남호 후보의 대표 공약인 ‘상산고 10개 만들기’를 시대적·교육적 현실을 외면한 반교육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비판 수위는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누구나 두 후보의 교육



철학과 신념이 사실상 적대적 수준이라고 인식해 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 단일화는 교육정책에 대한 진정성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이번 단일화를 두고 “전북교육을 기망하고 도민과 교육 가치를 무시한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야합과 기망이 난무하는 선거 국면 속에서도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으로 이끌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천 후보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정책과 비전으로 전북도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연대나 단일화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신념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는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좋은 교육정책은 반드시 계승해 전북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과 정치적 프레임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각 후보가 교육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단일화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선거 구도 역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안전의 날’ 맞아 2주간 안전주간 운영

전북교육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안전의식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2주간 안전주간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소속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주간은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과 학교 안전 점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를 함께 운영해 생명 존중과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주간 동안 각급학교에서는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을 비롯해 교통안전, 화재 예방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와 기관 내 화재 위험시설, 재난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노후 시설과 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안전주간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추모 방송과 묵념을 실시하고, 청사 실내의 전광판을 활용한 추모영상 상영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도 진행해 사회적 기억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각급학교에서도 학생 참여형 안전 캠페인과 계기교육이 함께 추진된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 항공기·선박 관련 안전사고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방법을 익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독일 등 14개국 유학생 전북에서 교육기부 나서

외국인 유학생 19명 포함 73명 ‘교육기부단’ 발대식
도내 학교 현장 직접 찾아 학생들의 배움·성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퇴직 교직원과 지역 전문가가 세계 각국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교육기부단을 출범시키며 지역 교육의 질적 도약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4일 본청 시청각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교육기부단은 총 73명으로, 개인 기부자 54명과 외국인 유학생 기부자 19명으로 구성됐다.

교육기부단은 전문성과 재능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협력 시스템으로,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올해는 독일, 필리핀, 우간다 등 14개국 출신의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9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등을 방문해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하며 국제 감수성과 글로벌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실제 외국인 유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기부자들의 활동 영역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추구와 풋살, 사물놀이, AI·로봇 탐구, 진로·직업 탐색, 환경 및 생태교육 등 학생들의 흥미와 미래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전문성을 갖춘 퇴직 교직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 투입돼 교육과정의 깊이를 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 경험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기부 활동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도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지역사회 우수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을 강화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기부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에 학교 교육과 만나 학생들의 배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앞으로도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기부단 출범은 지역사회와 대학,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북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치안역량 강화·균형발전 ‘동시에’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경찰특화도시 조성 전략 제시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이 최근 연구 결과로 남원시가 제2 중앙경찰학교(이하 경찰학교)를 중심으로 국가 치안역량 강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찰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이 발주하고 한국지리정보학회가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자인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최한별 교수가 연구를 총괄, 사이버범죄, 복합재난, 다중위협 대응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응해 남원을 미래형 경찰 교육훈련 중심지이자 치안산업 연계 혁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특화도시를 경찰학교 중심으로 교육·훈련 기능을 기반으로 한 전문 인재 양성 체계와 치안 R&D·실증 기능 보안산업 연계 생태계, 시민 참여형 치안문화 확산 정책·복지 인프라 결합된 공공 오픈 거점 혁신 클러스터 모델로 제시하고, 남원시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여건을 갖춘 도시로 분석했다.

특히 특화도시를 경찰학교를 중심의 교육·훈련·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미래형 치안 혁신지구 모델로서 국가 치안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도시 모델로 평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 연구에서는 △미래형 경찰 전문인재 양성 기반 구축 △첨단 사물물체인·드론·AI 기반 치안교육 인프라 조성 △치안 R&D 및 보안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 △시민 참여형 치안문화 확산 및 도시 브랜드 강화 등을 경찰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찰학교는 특화도시 조성의 핵심 앵커시설로서 교육·훈련·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미래 치안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 경찰인력 양성을 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한별 교수는 앞서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학교의 입지 이슈 브리핑의 책임연구자로 참여해 경찰학교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과 남원 입지의 타당성을 별도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남원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9회 춘향제 기간 중 특화도시 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및 체험 프로그램 등 현장 참여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별빛 여행’

전북과학교육원, 과학의 달 맞아... 28일 야간 특별 개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과학의 달을 맞아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특별한 야간 과학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과학교육원은 2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전시체험관에서 2026 장애 아동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여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 아동에게 전문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워주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 화합과 나눔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도내 장애 아동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과학의 달을 기념해 평소 주간에만 운영하던 전시체험관을 야간에 특별 개방해 보다 색다른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에서는 달과 행성, 항성,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직접 관측할 수 있으며, 과학 공작 체험 활동과 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과학의 달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전시체험관에서 2026 장애 아동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체투영과 관망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과학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해 보다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이와 함께 과학교육원은 과학의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올망올망 과학탐소풍’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상근 기자

학교 노무행정 담당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노무행정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대상 대규모 연수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담당자와 각급학교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등 1,7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공무직 나이스(NIS) 급여 시스템 교육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지고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현장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의 노무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현장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완주 캄пус, 전북과학교육원 군산 위(Wo)센터 등 5개 권역별 장소에서 8일간 나눠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덕유샘학교-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학생 자립 지원 ‘맞손’

덕유샘학교(교장 김선옥)는 14일,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사파농장, 마시탈 관리 등 지역 특

화 신업을 활용한 현장 중심 직업훈련 △전공과 및 중·고등학교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연계 △방학 중 전환기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계북권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